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 白雲洞書院 享祀禮 수정을 중심으로 -

한재훈**

Ⅰ 차례

- I. 序論
- II. 白雲洞書院 享祀禮에 대한 문제제기
- III. 「春秋享圖」와 「廟祭勿記」의 제정
- IV. 結論

【국문초록】

書院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講道(作人)와 尊賢(崇道)이다. 즉, 敎學공간으로서의 기능과 享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書院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하지만 그동안 書院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敎學공간으로서의 書院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 이는 書院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인 講道(作人)와 尊賢(崇道) 중에서 전자에 편중된 것으로, 書院의 전모를 온전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1549년 12월 退溪는 豊基郡守로 재직하면서 白雲洞書院을 賜額해달라는 주청을 方伯을 통해 나라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白雲洞書院이 우리나라 최초의 賜額書院인 紹修書院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賜額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 退溪가 白雲洞書院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享祀禮에 대하여

* 본 연구는 2012년도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 심층연구 사업의 자료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書院 享祀禮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書院 享祀禮의 定礎라는 관점에서 退溪의 업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白雲洞書院에서 행해지던 享祀禮에 대하여 退溪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退溪가 제정한 「春秋享圖」와 「廟祭飭記」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退溪가 書院 享祀禮를 완벽한 수준에서 정립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퇴계, 서원, 향사례, 백운동서원, 진설, 홀기

I. 序論

退溪(李滉: 1501-1570)가 활동했던 16세기 중엽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에 書院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시기였다. 그것은 書院이 아직 많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書院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講道(作人)와 尊賢(崇道)에 대한 이해 또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國學이나 鄉校 등이 있음에도 왜 書院이라는 敎學공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으며, 특히 書院에 先賢을 모시고 享祀를 행하는 의식절차는 아직 俗禮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書院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書院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享祀禮를 정립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 退溪이다.

그동안 書院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敎學의 장으로서의 書院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書院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인 講道(作

人)와 尊賢(崇道) 중에서 전자에 편중된 것으로, 書院의 전모를 온전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후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조선시대 書院의 발전과 관련한 退溪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로 敎學공간으로서의 書院을 중심으로 조명되어 왔을 뿐, 그가 享祀 공간으로서 書院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書院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의 진행을 위해, 특히 書院의 정착과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退溪의 기여를 享祀禮의 定礎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白雲洞書院에서 행해지던 享祀禮, 특히 陳設과 笏記에 대하여 退溪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한 다음, 자신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정한 「春秋享圖」와 「廟祭笏記」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退溪가 書院 享祀禮를 완벽한 수준에서 정립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書院 享祀禮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 白雲洞書院 享祀禮에 대한 문제제기

1549년 12월 退溪는 豊基郡守로 재직하면서 白雲洞書院을 賜額해달라는 주청을 方伯을 통해 나라에 올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白雲洞書院이 우리나라 최초의 賜額書院인 紹修書院이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賜額을 주청하기 직전인 1549년 가을 退溪가 白雲洞書院에서 준행되어 온 기존의 享祀禮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함으로써 書院 享祀禮와 관련한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賜額에 대한 주청이 書院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격이 짙은 작업이었다면, 享祀禮에 대한 준비는 書院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退溪가 書院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확산을 위해 경제적 토대뿐 아니라 실질적 내실도 함께 다져나가려 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愼齋(周世鵬: 1495-1554)가 제정하고 줄곧 시행해 오던 白雲洞書院의 享祀禮에 대해 退溪는 두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享祀의 '陳設'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儀式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笏記'와 관련해서이다. 愼齋가 찬술한 『竹溪志』¹⁾ 중 「行錄後」에는 당시 白雲洞書院에서 시행해오던 享祀禮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享祀의 陳設圖에 해당하는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과 陳設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는 「依圖祭用雜物式」이 그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이 당시 白雲洞書院에서 시행하던 陳設 현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면, 「祭式」은 간략한 형태로나마 享祀儀式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祭式」은 역시 愼齋에 의해 별도의 帖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笏記」와 더불어 당시 享祀의 의식절차를 보여준다.²⁾

먼저 白雲洞書院의 享祀에서 시행되어 오던 陳設에 대한 退溪의 문제 제기부터 살펴보자. 退溪는 기존에 시행되어 온 陳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蜜果'³⁾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는다. 退溪가 陳設에서 蜜果의 사

1) 1543년 白雲洞書院을 창건한 愼齋는 이듬해인 1544년 白雲洞書院의 享祀 대상인 晦軒(安珣: 1243-1306)을 위시한 竹溪安氏의 행적이나 관련기록물(行錄) 그리고 書院의 제정상태(學田)와 도서관비상황(藏書) 등을 기록한 『竹溪志』를 찬술하였다.

2) 退溪는 「祭式」과 「笏記」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國朝五禮儀』「釋奠儀」를 전거로 삼아 「笏記」, 역시 새롭게 정비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할 것이다.

3) '油蜜果'라고도 불렀던 '蜜果'에 대해 愼齋는 참쌀가루(眞木), 조청[淸], 기름[油] 등이 재료임을 밝히고 있다.(『竹溪志』「行錄後·依圖祭用雜物式」; 軟蜜果, 每位各肆升.

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國俗’에 따른 ‘藝味’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退溪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삼가 『竹溪志』本圖를 살펴보니, 우측 두 번째 豆에 軟蜜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周氏(愼齋를 말함: 논자)의 의도는 文成公 등이 모두 東人(중국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 논자)이기 때문에 國俗에 따라 蜜果를 제향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東人일지라도 기왕 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지, 어찌 蜜果와 같은 藝味를 學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果임에도 豆에 담아 올린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⁴⁾

여기에서 退溪는 愼齋가 蜜果를 陳設하도록 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즉, 享祀의 대상 인물들(正位: 文成公[安珣: 1243-1306], 配位: 文貞公[安軸: 1282-1348]과 文敬公[安輔: 1302-1357])이 우리나라 사람(東人)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리는 祭品 역시 우리나라의 풍습(國俗)에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退溪는 이러한 생각이 禮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退溪가 書院에서의 享祀에 대해 “學에서 제향을 받드는 것”이라며 그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이다. 즉, ‘學’으로서의 書院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고유한 운영방식이 있

【合眞末壹斗伍升, 淸參升, 油參升.】참고로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에는 ‘蜜果’로 기재되어 있으나, 「依圖祭用雜物式」에는 ‘軟蜜果’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茶山은 ‘蜜果’를 ‘藥果’라고 설명하였다.(『與猶堂全書』「雅言覺非」, ‘藥果’條: 按, 東語蜜謂之藥, 故蜜酒曰藥酒, 蜜飯曰藥飯, 蜜果曰藥果.) 茶山の 견해에 따르면 ‘蜜果’는 ‘軟蜜果’, ‘油蜜果’, ‘藥果’ 등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既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蜜果藝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고, 따라서 여기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享祀儀式 또한 이러한 이유와 방식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의식절차로 제정된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果임에도 豆에 담아 올린다”는 마지막의 지적은 書院의 享祀禮에 대한 당시의 이해가 ‘豆’의 용도와 성격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수준인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의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退溪가 ‘蜜果’를 일상적 음식(藪味)으로 규정해 그 진설을 반대하고, “옛 예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倣古而行)고 한 것은 당시 書院의 享祀禮가 아직 ‘俗禮’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⁵⁾(참고로 退溪가 말한 『竹溪志』 本圖란 아래 <그림 1>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을 가리킨다.)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蜜果	簋(黍)		簋(稻)	乾棗
菁菹	韭菹	簋(稷)		簋(梁)	栢子
		雞腥俎 幣筐			鹿脯
		香爐			栗黃
燭	爵	爵		爵	燭
祝站					
	門	○瓶 (正位尊所)	門	○瓶 (配位尊所)	門

<그림 1>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⁶⁾

5) ‘俗禮’에 대한 退溪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한재훈, 2010 참고.

6) <그림 1> 「安文成公春秋大享圖[配位同]」,은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6. 愼齋笏記, 117쪽 참조.(단, 본 자료에서는 ‘6. 退溪笏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은 享祀儀式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笏記에 관한 退溪의 문제제기이다.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白雲洞書院에서 시행했던 享祀儀式의 진행절차를 보여주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竹溪志』에 수록되어 있던 「祭式」이고, 다른 하나는 별첨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笏記」이다.⁷⁾ 이 두 자료는 모두 愼齋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退溪는 이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笏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書院에는 예전부터 「文成公廟祭笏記」⁸⁾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周武陵(愼齋: 논자)이 제정한 것이라 하는데, 그 의절이 대체로 簡易함을 따르는 데 역점을 두어 徑率苟且한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 더구나 그 중의 몇 조목들은 『竹溪志』 「祭式」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武陵이 제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⁹⁾

退溪가 愼齋(武陵)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지적하는 「文成公廟祭笏記」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書院에서의 享祀는 釋奠盛禮이기 때문에 上香禮와 初獻禮를 두 개의 절차

記', '7.愼齋笏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6.愼齋笏記', '7.退溪笏記'로 바로잡아야 한다.)

7) 「笏記」, 역시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6.愼齋笏記, 117쪽 참조.

참고로 「笏記」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혀 있다. “此笏記, 乃當初周愼齋所定, 而「依圖」, 「祭式」, 并同. 厥後, 有退溪先生損益定式而遵行之, 此乃古迹也.”(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2007), 298쪽 참조.)

8) 退溪는 愼齋가 제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笏記」를 「文成公廟祭笏記」라고 칭한다.

9)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書院舊有「文成公廟祭笏記」云, 是周武陵所定, 其儀大抵務從簡易, 未免有徑率苟且之病, 其間數條, 又有與「竹溪志」 「祭式」自相抵牾者. 由是言之, 殆非武陵所定也.

로 구분하여 별도의 의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文成公廟祭笏記」에서는 뭉뚱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太儉”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¹⁰⁾ 두 번째는 당연히 ‘飲福’을 먼저 하고 ‘受胙’를 나중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文成公廟祭笏記」에서는 이들의 순서를 뒤바꿔놓음으로써 의식절차들 상호간에 갖는 의미관계에 혼동을 야기했다는 점이다.¹¹⁾ 세 번째는 ‘受胙’를 한 다음에는 ‘受福’의 拜禮를 올리고 ‘徹籩豆’를 한 다음에는 ‘祭畢’을 고하는 拜禮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文成公廟祭笏記」에서는 ‘受胙’를 한 다음 ‘受福’의 拜禮는 생략한 채 ‘徹籩豆’를 진행하고 한꺼번에 拜禮를 올리게 함으로써 의식의 절차들이 갖는 각각의 ‘意義’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退溪가 이상에서 제기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은 결국 「文成公廟祭笏記」가 書院의 享祀禮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즉, 의식절차들 상호간의 유기적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각각의 의식절차들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한 채 그저 “簡易” 일변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退溪가 “徑率苟且한 병폐”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禮의 意義에 대한 몰이해와 선부른 편의주의가 결합하여 書院의 享祀禮를 ‘내용 없는 형식의 나열’로 전락시킨 데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講道(作人)와 더불어 尊賢(崇道)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書院¹³⁾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0)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香而旋初獻, 是爲太儉.

11)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釋奠儀」及「祭式」, 皆先飲福後受胙, 舊「笏記」則先受胙後飲福, 非禮之本.

12) 『退溪全書』 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受胙後四拜, 爲受福拜也; 徹籩豆四拜, 爲祭畢拜也. 凡禮之節, 皆有意義, 不可徑削. … 舊「笏記」直削受福之拜, 只於徹籩豆後行再拜, 非也.

13) 『退溪全書』 卷12,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郡守金慶言」: 嗚呼, 書院何爲而設也?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春秋享圖」와 「廟祭笏記」의 제정

道學의 메카로서 書院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간망했던 退溪로서는¹⁴⁾ 書院의 경제적 토대를 다지는 것 못지않게 내실을 기한다는 점에서 享祀禮의 정비는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 서원의 효시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白雲洞書院조차 享祀禮의 수준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질적인 제고를 필요로 했다. 이는 享祀儀式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陳設과 笏記가 아직 俗禮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禮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던 현실이 잘 보여준다. 이에 退溪는 앞서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愼齋가 제정한 자료들을 개정하여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과 「文成公廟祭笏記」를 새롭게 제정한다.¹⁵⁾

其不爲尊賢而設耶，講道而設耶？ / 卷42, 「迎鳳書院記後改川谷」: 我東書院, 亦昉於今日, 皆所以廣教思敦化原也, 而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爲備也.

14) 『退溪全書』卷12, 「答盧仁甫」: 大抵學校之設, 誰非爲道學耶? 而在書院, 則爲道學之意尤專.

15)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원래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先生遺墨'이라는 표지가 붙은 고문서자료(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6)가 소장되어 있다.(이하 '遺墨자료'로 칭함) 이 자료의 앞뒤 표지에는 각각 '春秋享圖'(본문 제목에는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으로 되어 있다)와 '廟祭笏記'(본문 제목에는 '文成公廟祭笏記'라고 되어 있다)라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春秋享圖」는 곳곳에 수정이 가해진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退溪의 文集에 수록된 「安文成公享圖〔配位同〕」과 같다.(文集에 수록된 자료는 '遺墨자료'에 수정이 가해진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廟祭笏記」는 愼齋의 「笏記」에 대한 退溪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어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먼저 退溪는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이하 「春秋享圖」)에서 앞서 제기한 陳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蜜果를 제거하고 鹿醢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籩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魚鱸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左籩의 脯·果와 右豆의 醢·菹¹⁶⁾가 둘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¹⁷⁾

「春秋享圖」에서 退溪는 기존의 陳設에서 ‘蜜果’를 올렸던 관행을 고쳐 ‘鹿醢’로 대체해 올릴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반대편 籩에도 세 종류의 과일을 올리던 것을 두 종류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한 곳은 ‘魚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좌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籩(左四籩)과 우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豆(右四豆) 사이에

16)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에는 ‘脯·醢·果·菹’가 아니라 ‘醢·菹’로만 되어 있다. 하지만 ‘遺墨자료’에는 본래 ‘左右籩豆, 脯·醢·果·菹’라고 되어 있던 것을 다시 ‘左’자 옆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籩脯果右’라는 네 글자를 기입하여 삽입할 것을 보이는 한편, ‘脯’자와 ‘果’자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놓아 삭제할 것을 보였다. 따라서 문맥상 退溪의 의도는 ‘左右籩豆, 脯·醢·果·菹’를 ‘左籩脯·果, 右豆醢·菹’로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려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보아야 뒤의 ‘兩兩相對’라는 표현과도 더욱 잘 호응하게 된다.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7. 退溪笏記, 121쪽에도 같은 이름의 「笏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左籩脯·果, 右豆醢·菹’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추측의 정당성을 담보해주고 있다. 참고로 이 자료의 표지에는 “老先生筆蹟蓋久, 手澤猶存, 敬慕益篤. 或字畫破傷處, 恐後之愈久而愈失其眞, 茲以別紙粘附云.”이라고 하여 이 역시 退溪의 遺墨자료임을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봉에는 “退溪先生親筆笏記”라고 적혀 있다. (이 사실은 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그렇다면 陶山書院에 소장된 자료가 초고이고, 紹修書院 소장 자료는 초고에서 행한 수정작업이 반영된 형태의 자료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文集에는 본래의 ‘左右籩豆, 脯·醢·果·菹’ 중에서 ‘脯’자와 ‘果’자만 삭제된 채 수록되어 있어 문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인용문에서는 ‘遺墨자료’에 따라서 해석하였다.

17)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鱸, 則左右籩豆, 醢·菹兩兩相對, 無參差矣.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즉, 좌측 籩에 두 종의 脯[魚鱸과 鹿脯]를 진설하고 우측 豆에 두 종의 醢[魚醢와 鹿醢]를 진설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는가 하면, 좌측 籩에 두 종의 果[乾棗와 栢子]를 진설하고 우측 豆에 두 종의 菹[菁菹와 韭菹]를 진설함으로써 역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던 것이다.(아래 <그림 2>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 참조)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菁菹	鹿醢 韭菹	簋(黍) 簋(稷)	雞腥俎 俎 幣篚	簋(稻) 簋(梁)	魚鱸 鹿脯 乾棗 栢子
燭	爵	香爵		爵	燭
祝拈					
門		門	正位尊	配位尊	門
			○	○	

<그림 2> 安文成公春秋享圖[配位同]¹⁸⁾

退溪는 혹시 鹿醢와 魚鱸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균형 잡힌 陳設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두기도 하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鹿醢 대신 菁菹를 올리고, 예전처럼 魚鱸 대신 果를 올린다. 그리하면 禮의 本意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退溪는 “蜜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¹⁹⁾ 이렇게 鹿

18) 그림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은 退溪가 대안으로 제정하여 제시한 부분이다.
 19)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若鹿醢·魚鱸有未備, 則寧以菁菹代鹿

醢 대신 芹菹를 올리고 魚鱸 대신 菓를 올리게 되면, 左籩에는 一脯三菓가 올려지고 右豆에는 一醢三菹가 올려지게 되어 역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退溪는 書院 享祀禮의 陳設에서 左籩右豆의 균형을 매우 중시했다.

그렇다면 退溪가 愼齋의 陳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는 무엇을 전거로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그가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笏記와 관련해서 그가 주요하게 참고했던 전거가 『國朝五禮儀』 ‘釋奠儀’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國朝五禮儀』에는 書院의 享祀禮와 관련한 조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退溪는 鄉校 享祀禮의 준거가 되었던 『國朝五禮儀』 「州縣釋奠文宣王儀」와 『國朝五禮序例』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을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鄉校의 享祀禮는 文宣王(孔子)을 위한 釋奠이기 때문에 左右에 각각 八籩·八豆를 진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書院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즉, 先賢을 모시는 書院의 경우에는 四籩·四豆를 진설함으로써 鄉校와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退溪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籩·四豆에 올릴 祭品만큼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八籩·八豆에 준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 退溪가 설정한 書院 享祀禮의 기본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退溪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鹿醢’와 ‘魚鱸’은 물론 鹿醢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대체물로 제안했던 ‘芹菹’ 등이 모두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에 규정된 祭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退溪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醢, 而仍以果代魚鱸, 庶不失禮之本意, 蜜果恐不可用也.

書院의 享祀禮를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던 俗禮의 수준이 아닌 객관적 근거 위에 의식절차를 정립시킴으로써 질적인 제고를 기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退溪는 愼齋의 「文成公廟祭笏記」와 같은 이름의 笏記를 새롭게 제정한다. 이 新笏記²⁰⁾에서 退溪는 ‘釋奠儀’(『國朝五禮儀』「州縣釋奠文宣王儀」)를 전거로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舊笏記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書院 享祀禮에서 사용될 笏記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退溪가 제정한 新笏記는 우선 舊笏記에서 上香禮와 初獻禮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했던 것을 두 개의 의식절차로 분명하게 구분하였고,²¹⁾ 다음으로 舊笏記에서 先‘受胙’ 後‘飲福’으로 되어 있던 것을 先‘飲福’ 後‘受胙’로 바로잡았으며,²²⁾ 마지막으로 舊笏記에서 ‘受胙’한 뒤 행해야 할 拜禮를 생략했던 것을 다시 보완하여 되살렸다.²³⁾ 新笏記는 이처럼 舊笏記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舊笏記에는 없는 부분들까지 보완하여 한층 완결된 형태의 笏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新笏記에서 退溪는 享祀禮에서 三獻官과 六執事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화하였고,²⁴⁾ 正位와 配位에 대한 祝文 내용도 재검토하여 기존

20)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愼齋의 「文成公廟祭笏記」는 退溪가 ‘舊笏記’로 지칭한 바에 따르고, 이에 대해 退溪가 새롭게 제정한 「文成公廟祭笏記」는 편의상 ‘新笏記’로 지칭하기로 한다.

21) 「文成公廟祭笏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고문서자료/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6): ○行上香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 ○三上香 ○俯伏興 ○引降復位 ○行初獻禮 …

22) 「文成公廟祭笏記」: ○飲福受胙 執事詣文成公尊所 ○以爵酌福酒 … ○獻官飲卒爵 ○反爵 ○執事北向以俎授獻官 ○獻官受胙 …

23) 「文成公廟祭笏記」: ○飲福受胙 … ○獻官受胙 ○授執事 ○俯伏興 ○引降復位 ○再拜 獻官以下皆再拜

24) 「文成公廟祭笏記」: 備三獻官六執事〔有司前期七日 告本官及斯文 定獻官, 執事〕

初獻官: 郡守, 有故則斯文	祝: 斯文
----------------	-------

의 것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 지어 실었다.²⁵⁾

그런가 하면 退溪는 新笏記에서 舊笏記나 「祭式」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제거하는 작업도 단행하였다. 예컨대 舊笏記에는 致齋하는 기간에 獻官들이 장서의 보관상태와 건물의 유지상태 등을 살피고 곡식과 집기 등 재정상태를 회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기하였는데²⁶⁾ 新笏記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退溪는 愼齋가 「祭式」에서 降神을 위한 三上香을 마친 뒤 학동들로 하여금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竹溪辭」

亞獻官: 斯文	贊者一人: 院有司或諸生
終獻官: 斯文	謁者一人: 院諸生
	贊引一人: 院諸生
	司尊一人: 院諸生
	奉香一人(奉爵兼): 院諸生
	奉爐一人(奠爵兼): 院諸生
	院諸生不備則校生

25) 「文成公廟祭笏記」: ● 文成公 祝文: “尊信斯道 闡教東方 功存學校 惠我無疆”(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東方’이 ‘吾東’으로 되어 있고, 惠我無疆이 ‘百世攸宗’으로 되어 있다.) ● 文貞公 祝文: “仍用”(이는 다른 축문들의 경우 기존의 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 文敬公 祝文: “剛德廉清 進禮退義 遺風凜然 儒夫立志”(이 글은 『退溪全書』 卷45 祝文에 「祭安文敬公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단, 文集에는 ‘清’이 ‘節’로 되어 있다.) 참고로 紹修書院 소장 자료 역시 陶山書院 소장 ‘遺墨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2007), 299쪽 참조.) 다만, 陶山書院 소장 자료는 草書로 쓰여 있고, 紹修書院 소장 자료는 楷書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밖에도 退溪는 臨臯書院의 主享인 文忠公(圃隱 鄭夢周)에 대한 祝文도 함께 적어 두었다. (文忠公 祝文: “學造天人 忠貫日月 光前啓後 永世無斁” 이 자료는 退溪의 文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圃隱先生集附錄』에 「臨臯書院春秋享祝文(退溪)」로 수록되어 있다.)

26)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6. 愼齋笏記, 117쪽: 致齋日, 獻官點曬藏書, 省視牆宇罅漏, 會計米穀什物, 受禧日, 衆斯文共祭之. (司馬有司每節必檢, 院中有司每月必檢.)

를 노래하게 한다거나, 初獻, 亞獻, 終獻이 끝난 뒤에는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된 「道東曲」을 각각 세 개의 장씩 나누어 부르게 했던 의식²⁷⁾ 역시 新笏記에서는 생략하였다.²⁸⁾ 愼齋가 제정한 이러한 의식절차들을 退溪가 삭제하거나 생략한 것은 아무래도 享祀禮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조항이거나 ‘釋奠儀’와 같은 객관적 전거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조치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7) 愼齋의 謚狀이나 年譜에 따르면 愼齋는 「竹溪辭」와 「道東曲」을 지어 享祀를 지낼 때 노래 부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武陵雜稿』附錄卷4, 「謚狀」〔金魯敬〕: “作「竹溪詞」, 「道東曲」, 歌以祀之.” / 「愼齋先生年譜」: “作「竹溪詞」, 「道東曲」, 使歌以祀之.”) 그리고 그 儀節과 관련해서는 『竹溪志』 「行錄後·祭式」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行上香禮 ○引初獻官盥 ○引詣文成公神位前 三上香 【童歌竹溪辭三章】 ○次詣配位前 皆三上香 ○引降復位 ○行初獻禮 ○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 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讀祝 ○次詣配位前 ○獻酌 ○讀祝 ○引降復位 【童歌道東曲首三章】 ○行亞獻禮 ○如初獻 引降復位 【童歌道東曲中三章】 ○行終獻禮 ○如亞獻 引降復位 【童歌道東曲末三章】
 ※ 참고로 「竹溪辭」, 3장과 「道東曲」,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竹溪辭」: ①竹溪在東 小白在西 公之廟兮在其間 白雲滿洞兮前路迷 溪有魚兮山有柏 是公舊遊兮胡不歸 歸兮歸兮毋使我悲 ②小白在西 竹溪在東 山有雲兮水有月 古今兮是同 公之來兮駕玉蚪 或驟以紫鸞 酌我體兮有我誠 庶我款兮盡爾歡 ③公昔未生兮斯文晦 大倫墮地兮雲煙昏 自公一出兮洗三韓 白日青天兮吾道尊 有廟枚枚兮公像在中 竹溪彌清兮小白彌崇 / 「道東曲」: ①伏羲神農黃帝堯舜 【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②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主君子 받거니 聖人の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③禹湯文武皐伊周 召 【再唱】 偉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④下土茫茫兮 上帝是憂 堯 玆 圻頂大人을 洗泗 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⑤率 兮 天命之性 養 兮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 이아 본니이다 ⑦光風霽月 瑞日祥雲 【再唱】 偉 그저딘 긴늘 엇데호 아니으신고 ⑧人欲이 橫流 兮 浩浩滔天일시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으로 本을 세어 大防을 鳴 兮 仲尼나 다르시리잇거 ⑨三韓千萬古에 眞儒를 祀오 시니 小白이 廬山이오 竹溪이 濼水로다 興學衛道는 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庵이 그功이 크샷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竹溪出小白山 濼溪出廬山】

28) 「祭式」에서 제시하고 있는 「竹溪辭」나 「道東曲」을 노래하는 의식은 舊笏記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退溪는 舊笏記의 내용에 대해 비판할 때는 그것이 「祭式」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舊笏記가 愼齋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까지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祭式」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舊笏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新笏記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退溪가 舊笏記와 「祭式」을 구분하지 않고 愼齋의 享祀禮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애초에 退溪가 笏記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였다는 사실이다.²⁹⁾ 네 번째로 退溪가 제기한 문제점은 書院 享祀禮에서 拜禮를 행할 때 再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祭式」에서는 다만 再拜하는 禮를 행하라고 했고, 「舊笏記」 역시 이에 의거하여 모두 再拜를 행하도록 하였다. 人情이란 간소함을 좋아하고 번다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두들 이를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再拜하는 禮는 家祭에서나 하는 것이며, 모든 外神에게 제향을 드릴 때는 四拜하라고 되어 있다. 再拜하라는 글이 있는지 보지 못했으며, 周武陵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우선은 「釋奠儀」에 의거하여 四拜하기로 정하고 參考를 기다린다.³⁰⁾

退溪는 당시 書院의 享祀禮에서 ‘家祭에서나 행하는’ 再拜를 행하는 관행에 대해 몹시 미안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書院 享祀禮를 家祭와 같은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당시 書院 享祀禮에서 再拜를 하던 관행을 ‘간소함을 좋아하고 번다함을 싫어하는’〔喜簡厭煩〕 人情에 따른 처사로 단정했다. 그리고 『國朝五禮儀』에 제시된 外神들에 대한 拜禮가 모두 四拜라는 사실과 「釋奠儀」에서도 四拜를 하도록 규정한 바를 근거로 書院 享祀禮에서도 四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추후 退溪는 자신의 이러한 제안을 취소하는 글을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29) 이 네 번째 문제제기 조항은 ‘遺墨자료’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文集은 물론 紹修書院 소장 자료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30) 「文成公廟祭笏記」: 「祭式」云「只行再拜禮」, 「舊笏記」亦依此皆行再拜. 人情喜簡厭煩, 皆以爲當也. 然再拜之禮, 唯家祭爲然, 若祭諸外神, 皆云四拜. 未見有再拜之文, 未知周武陵何所據而云, 姑依「釋奠儀」四拜爲定, 以俟參考.

이 조항에서 “外神에게는 모두 四拜하라, 再拜하라는 말이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단지 『五禮儀』만을 의거하고 한 말이었다. 『翰墨全書』³¹⁾에 실린 朱文公의 釋奠·釋菜儀에 모두 再拜를 행하라 하였고, 四拜하는 禮가 없음을 살피고서야 周武陵이 「祭式」에서 再拜하라고 한 것이 여기에 근거하여 정한 것임을 알았다. 내가 모든 의절을 두루 참고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고치려 했던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笏記에는 再拜를 그대로 두었으며, 이 조항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나의 허물을 기록으로 남긴다.³²⁾

그런데 이 네 번째 문제제기와 이를 취소한 기록은, 退溪가 스스로 취소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본의와는 달리 文集에 수록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書院 享祀禮를 定礎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退溪의 몇 가지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退溪가 書院 享祀禮를 정립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의 書院 享祀禮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했지만 이를 해결할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退溪는 書院 享祀禮를 경전적 전거 위에 객관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관련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五禮儀』에 나오는 ‘外神’들에 대한 拜禮나 ‘釋奠儀’를 참고하였다가, 다시 朱子の 釋奠·釋菜儀를 고증하여 이를 재수정하는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입장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退溪가 학자로서의 엄밀하고도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

31) 『翰墨全書』: 宋末元初에 熊禾가 劉應季의 『事文類聚翰墨全書』 10函 80冊을 새로 편집하여 엮은 것으로 일종의 백과전서이다.

32) 「文成公廟祭笏記」: 今按, 此條‘外神皆四拜 未見有再拜之文’者, 只據『五禮儀』云也. 及考『翰墨全書』所載朱文公釋奠釋菜儀, 皆行再拜, 無四拜之禮, 乃知周武陵「祭式」, 只行再拜, 據此而定也. 滉不徧考諸儀, 而遽欲改之者, 妄也. 故笏記仍存再拜, 而不去此一條, 以識滉之過也.

과 더불어 書院 享祀禮를 계속해서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후인들이 참고할 만한 경험의 축적과정을 보여준다.

IV. 結 論

본 논문은 書院 享祀禮의 발전과정에서 退溪의 역할을 ‘定礎’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退溪가 白雲洞書院 享祀禮에 대해 제기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書院 享祀禮와 관련하여 退溪가 아직 완벽한 정립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退溪가 書院 享祀禮에 대해 가능하면 객관적 전거 위에서 俗禮적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한 점이라든가, 의식절차 하나하나의 의미는 물론 의식절차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 의미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밝힌 것은 이 논문이 거둔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書院 享祀禮에 대한 退溪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부분의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은 書院 享祀禮와 관련하여 享祀의 대상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退溪의 입장을 살펴보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한다. 國學이나 鄉校는 享祀 대상에 대한 이론이 제기될 수 없으나, 書院은 누구를 享祀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한 退溪의 입장은 ‘道學’의 수준과 ‘道統’의 기여정도라는 원칙을 견지하였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이후 동일한 사안이 대두됐을 때 중요한 전거로서 활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書院 享祀禮와 관련한 退溪의 작업이 이후 창

건되는 많은 書院들의 享祀禮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왔는가에 대한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退溪는 晩年에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易東書院의 건설에 적극 개입하면서 書院의 명칭을 직접 짓고 썼던 것은 물론 부속건물들의 명칭까지 제정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³³⁾ 이때 退溪는 易東書院의 享祀禮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白雲洞書院 享祀禮를 참고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³⁴⁾ 실제로 易東書院의 享祀笏記는 白雲洞書院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⁵⁾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竹溪志』

『退溪全書』

『月川集』

『與猶堂全書』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I, 1999.

한국국학진흥원, 『陶山書院 古典籍』(國學資料目錄集 6), 2006

嶺南文獻研究所, 『紹修書院誌』, 2007.

한재훈, 「『喪祭禮答問』 分析을 통한 退溪의 俗禮觀 考察」, 『退溪學報』 128집, 2010, 5~59쪽.

33) 『月川集』 卷5, 「易東書院事實」: 是夏四月堂成, 前列六楹曰明教堂, 東西各有溫房, 東曰精一齋, 西曰直方齋. 直方之北藏書閣曰光明室, 堂後少東立祠廟三間曰尙賢祠, 前列東西二齋各三間, 東四勿, 西三省, 其南立大門曰入道, 西齋之西立廚庫, 總名之曰易東書院, 皆先生所定也.

34) 『退溪全書』 續集卷 6, 「與琴聞遠[丁卯]」: 竹溪書院「祀文成公儀, 舊有謄本, 共覽去取, 以爲他日祭禹公之儀何如?

35)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고문서자료(자료번호: 국학자료 KS0069-2-83-00007) 참조.

中文摘要

退溪的书院享祀礼定础

韩在埴

书院的两个重要机能是讲道(作人)与尊贤(崇道), 就是说, 教学机关的机能与享祀空间的机能。然而从来研究对于书院集中于教学机关的机能一面, 忽略于享祀空间的机能一面。因为这种研究倾向不能圆满了解书院的健全的体制与机能, 于是研究对于书院的享祀机能的必要性强力抬头。

公元1549年12月退溪在任丰基郡守时, 奏请于朝廷赐额白云洞书院, 因此明年朝廷赐额‘绍修书院’于白云洞书院, 绍修书院是朝鲜王朝最初赐额书院。这是众所周知的事, 而多不知同年秋退溪指点了几种问题对于白云洞书院享祀礼, 而后提示了修正方案, 因此书院享祀礼可能具有重要标准。

本论文从定础书院享祀礼的观点考察退溪的业绩, 先检讨退溪的指点对于白云洞书院享祀礼, 然后分析退溪的代案对于所既指点的问题。通过如此检讨与分析, 我们可以确认退溪对朝鲜时代书院发展的贡献不仅是教学方面也是享祀方面很大。

关键词

退溪, 书院, 享祀礼, 白云洞书院, 陈设, 笏记

▪ 논문투고일 : 2013.7.15. 심사완료일 : 2013.7.30. 게재결정일 : 2013.7.30.